

PECL사의 한 간부는 「아직 협상을 가진 바 없으나 이것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본다」고 말했다. 당초 계획에 따르면 Bechtel사는 이 회사에서 60%의 주식을 소유하고 초기 10년간의 운영을 맡게 되었으며 그 후에 Sintech사가 일차적인 임무를 맡게 돼있다. 회사운영과 교육훈련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Bechtel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만정부는 PECL사에게 원자력 설계용역의 독점권을 주는데 동의했다. 그 당시 국영업체인 대만전력은 원자력 7, 8호기의 건설공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금세기 말까지 총 15기의 상업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.

PECL사는 회사창립 당시 1년 이내에 650명의 종업원을 확보했으며 그 후 2, 3년 사이에 이를 1,5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었다. 그러나 7, 8호기의 건설이 계속 연기돼 앞으로 몇 년간 이것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 같다. 현재 PECL사는 단지 475명의 정규사원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. 이 회사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만 이 회사가 대만전력의 기존 플랜트에 대한 환경 및 석유화학 엔지니어링과 원자력플랜트 운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. 1987년말 현재 非원자력 업무가 이 회사 사업의 25%를 차지했고, 금년 말까지 이 비율을 50%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「신규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된다 해도 우리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일들이 많다」고 PECL사의 한 간부는 말하고 「우리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자들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곁을 떠났다. 그들은 신규 프로젝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원자력사업에서 떠났다.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. 왜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훌륭한 기술이전계획을 갖고 있어 우수한 중국 원자력 엔지니어 단체를 창

출했다고 자부했었기 때문이다. 그러나 현재 이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만 있다」고 했다.

원자력 업무에 전념한다는 취지 아래 대만에 서 설립된 또 하나의 합작회사도 역시 다른 분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. 대만의 CTCI사와 미국의 Ebasco사의 합작회사인 Ebasco-CTCI사는 PECL사가 창설되고 나서 곧 설립되었다. 이 회사는 대만정부로 하여금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PECL사에게 주어진 독점적인 계약을 파기하도록 종용했었으나 아무런 설계용역계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회사 역시 4기의 기존 원자력 유니트(Ebasco사 설계)에 대한 운전관련 서비스만으로 회사를 지탱할 수 밖에 없었다.

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의한 수입은 이 회사 사업규모의 약 50%를 차지한다. 나머지는 환경 엔지니어링 및 제철소 프로젝트와 대만전력의 화력플랜트프로젝트에서 온다. 현재 240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이 합작회사는 당초 Ebasco사에서 60%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. 금년에 이 주식지분은 50 대 50으로 변경됐다.

사우디아라비아

NPT 署名을 決定

사우디아라비아政府는 Riyadh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Fahd國王이 核非擴散條約(NPT)에 서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4月26日 발표하였다.

NPT에 서명하기로 한 동기는 중국에서 들여온 CSS-2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.